

연구논문

가족 조직이 가족 구성원과 자아 성찰에 주는 영향: 20대의 가족경험을 중심으로

곽 미 정*
최 창 현**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맺음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의 내면에 자리한 가족이라는 기본조직에 갖는 의미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대 청소년의 삶속에서 그들이 인식하는 가족경험을 통하여 가족이라는 기본조직에 갖는 의미에 관해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8명의 20대 남녀 성인이며 인터뷰는 사회복지전공자들에 의해 2012년 4월 20일부터 2012년 5월 12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의미는 20대 남녀 성인들이 제공하는 가족경험을 토대로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내면의 의미를 분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과정의 가족경험은 청소년들에게 개인적 트라우마나 자아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경험은 개인에게 정신적인 기반인 근원의식, 소속감 혹은 가족응집력 등의 가족조직의 기본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경험은 결국 가족의 형태 즉, 개인형을 비롯하여 가족응집형(긍정형), 가족방임형(외면형)과 같은 가족의 내면적 유형에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가족을 통한 경험은 청소년 개인에게 가족의 의미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의 문제가 구성원과 가족이라는 기본조직에 있어서 상호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족임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가 가족이라는 조직의 건강한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청소년, 가족, 가족 경험, 가족의미, 가족응집력]

* 김포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jina777077@naver.com)

** 교신저자, 가톨릭관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choich@cku.ac.kr)

I. 서론

가정은 개인생활의 기초로 인생과 사회생활이 출발되는 곳이다. 김경아(2002)는 가족이란 공동의 주거, 경제적인 협력 및 생식 등의 특성을 갖는 사회조직이면서, 초기 사회화의 바탕이 이루어지고 정서적 안정과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기초단위라고 하였다(김경아, 2002). 또한 가족의 건강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는데(Adelmann, 1994), 이와 같은 결과는 환경적인 요인 즉, 가정의 요인들이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는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동시에 복잡한 맥락을 형성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성학, 2012). 이는 특히 개인의 행복에 가정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허승연, 2009)도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부모간의 관계는 자녀의 안정 및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최성학, 2012). 가족이라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이길자, 2007). 생활세계는 주관성의 경험이나 형식에 대한 하나의 태도이자 지향이기 때문이다(최연실,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의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들에게 있어 가족이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탐색하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족이 성장과정을 비롯하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됨으로써 상호간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체계이론적 기반에 근거이론을 통해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한 이유는 인터뷰과정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주고받는 역동성 가운데 인과조건은 무엇인지, 중재적 상황이나 작용 및 상호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근거이론을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20대의 남녀는 청소년에서 이제 막 성인으로 발돋움하여 점차 새로운 가족단위를 이루며 사회의 건강한 기본단위를 이루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utcher(2000)는 가족의 행동과 태도, 부족한 감독 혹은 일시적 반응이나 불안정 등은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가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행동은 가족 체계적 차원에서 상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이혼이나 가족 폭력 등은 부모간의 관계 그 자체로도 자녀에 대한 안정감이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printhall & Collins, 1995), 따라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과 배려와 같은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의사소통한 경우의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한 동정과 적절한 반응 및

협동과 같은 친사회적 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Kazdin, 1987). 또한 부모와 자녀사이의 의사소통, 평온한 가정 분위기 등의 양육방식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okol-Katz, Dunham & Zimmerman, 1997). 더욱이 20대 남녀는 발달학적 측면에서 있어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인생의 문턱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에 처해 있는 20대 성인남녀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을 가족경험을 통해 탐색해보아 그에 자리하고 있는 인과적 조건과 맥락 등을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해봄으로써 건강한 가족과 가족의 회복에 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926년 Ernest Burgess는 ASA(American Sociology Association)에서 가족을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단위로 언급했다(Smith, 2009). 이는 일반체계이론의 근본적인 가정인 부분보다는 전체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가족의 체계는 가족원간의 교류¹⁾를 통해 이해되는 것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가족의 교류패턴이나 행동의 순환절차에 있어 단선적 인과관계보다 전체체계적인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과적 순환이 행동으로 피드백의 순환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체로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건강하거나 병리적인 관계는 의사소통의 관계에 기인한다.

체계이론은 학자에 따라 1979년 Broderick과 Smith가 이 이론의 주요개념을 설명하였고, 2002년 White와 Klein이 체계이론의 개념을 체계나 경계, 엔트로피, 가족유연성, 상호성, 피드백과 같은 용어로 발전시켰으며 이 후 David Olson(2000)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가족체계의 상호성에 대한 순환모델의 치료법을 활용하였다(Smith, 2009). 가족치료분야는 체계이론의 의사소통의 기술 즉, 경청, 반복, 명료성 등을 통해, 가족이 밀착과 유연성사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돕고 있다. 체계이론은 가족학에서 인간사회의 다양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상호작용의 순환성, 의사소통, 가족의 역동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다(Smith,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과연 가족이 우리 주위에 있는 20대 성인 남녀에게 어떠한 의미로 존

1) 가족 내 과정 즉, 기능, 의사소통과 교류패턴, 가족갈등, 가족원과의 분리와 연계, 응집, 통합,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재하는가하는 부분에 관해 근거이론을 통하여 접근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체계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계성이라든가 경험 및 의사소통 등의 요인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가족경험의 의미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서는 보통 연구 참여자의 선정을 이론적 표본추출방법(theoretical sampling)에 의하여 추출할 것을 권장하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에게 자신의 내면에 관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여 S여대 사회복지전공 석사생들에 의한 유의표집을 통하여 20대 남녀 8명을 본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인터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대략 2012년 4월 20일 경부터 시작되어 5월 12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각 인원에 대한 인터뷰는 한 시간 내외로 구조화된 질문의 순서에 따라 반구조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특징을 정리한 것으로 각각 20대 여성 4명, 20대 남성 4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은 학생부터 취업준비생, 전문직 등으로 비교적 다양하였고, 동거가족이나 가족 구성원 그리고 종교 및 연령대도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2.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1〉 20대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8)

사례	연령	성별	나이	가족구성원	동거가족	직업	종교
참여자1	20대	여	23	부모, 1남 2녀	2명(할머니/삼촌)	그래픽 디자이너	무교
참여자2	20대	여	25	부모, 1녀	2명/(부모님)	학생	천주교
참여자3	20대	여	25	부모 1남1녀	없음	학생	무교
참여자4	20대	여	29	모, 3녀	없음	기자	없음
참여자5	20대	남	24	부모 2남	없음	공중 보건의	기독교
참여자6	20대	남	26	부모, 3남 1녀	없음	취업 준비생	기독교
참여자7	20대	남	27	부모 1남1녀	없음	대학원생	무교
참여자8	20대	남	28	모, 1남	없음	출판사 직원	무교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통하여 가족경험을 인터뷰를 통하여 탐색해보고 가족경험이 사회의 기본조직인 가족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떤 함의가 있는지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문지를 구조화한 이후 반 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을 통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1) 가족의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가족이라는 기본조직에 긍정적 가족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 2) 가족의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가족이라는 기본조직에 부정적 가족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IV. 연구과정

1. 개방코딩(open coding)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은 원자료를 개념화하고 이를 범주화 등 지속적인 비교방법을 통하여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개방코딩의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응답의 범주를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의 범주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통하여 가족의 정의는 혈연을 비롯하여 친척, 한 공간에서 오래 생활해온 사람, 오랜 직장동료나 이웃, 애완동물 등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비교적 다양하게 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에 따른 가치관에 따라 그 하위 범주가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표 2는 인터뷰 참여자의 응답에 따른 가족의 범주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2〉 연구참여자들의 응답범주

연구 질문	사례	응답 내용
가족의 범주	전체	① 혈연 ② 사촌 등(가문) ③ 함께 지내는 사람 ④ 직장 사람들 ⑤ 심리·경제적으로 함께하는 사람 ⑥ 애완동물들
가족의 조건		① 책임감 ② 심리적 공유 ③ 공동생활 ④ 경제
가족 범주 혹은 조건	20여	'혈연이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 같이 살았거나, 직계가족, 혹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포함가능
	20남	혈연, 직계가족, 심리·경제·애정·입양·애완동물·후견인 등의 다양한 조건이 가능하며 특히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
	소결	특별한 세대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혈연을 기본으로 하여 애완동물은 물론 친한 친구나 이웃이 직장동료까지 범주에 넣는 것으로 보아 가족에 대한 정의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가족에 관한 기억

다음은 가족에 관한 기억에 관해 질문한 것으로, 질문은 가족을 떠올리는 경우, 기억에 남는 일, 좋았던 기억, 좋지 않은 기억 등에 관한 인터뷰로, 가족을 떠올리는 경우는 심리적으로 힘들 때,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좋은 것을 보았을 때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억에 남는 일로는 가족구성원의 큰 변화나 체벌 등이 있었고, 좋았던 기억은 가족과의 여행, 식사를 통한 시간의 공유, 특히 부모님의 정다운 모습이나 병고의 회복 등이 있었으며, 좋지 않은 기억으로는 부모님의 불화나 병고, 이탈, 은퇴, 상실 등으로 경우에 따라 응답자들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기도 했다. 일상이나 인생을 통해 겪을 수 있는 기억이 연구 참여자의 기억 속에 자리하면서 가족에 대한 이미지에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자리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 가족을 떠올리는 경우, 기억에 남는 일, 좋았던 기억, 좋지 않은 기억

사례 (성별연령)	가족을 떠올리는 경우	기억에 남는 일	좋았던 기억	좋지 않은 기억
전체	① 심리: 불안/외로움/힘들 ② 물리: 아플 때 ③ 경제: 경제의존 기타: 좋은것을볼 때	● 가족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 구성원의 변화 ● 체벌 받았을 때 ● 기타) 이벤트나 감정적인 상처 혹은 그리움 등	● 시간의 공유-동물원이나 가족여행 등 ● 관심과 배려-아플때 태워다 주거나 주물러 준 기억 등 ● 부모님의정다운 모습	● 부모의 불화 ● 가족원간의불화 ● 구성원의 이탈 ● 구성원의 병고 ● 부모님의 은퇴 ● 구성원을 잃은 기억 ● (트라우마되기도함)

다음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의지가 되는 사람과 그 이유, 그리고 가족 중 가장 소원한 사람과 이유에 관해 질문한 것이다. 다음의 표 5를 통해 가족에서 의지가 되는 사람은 직계가족이나 사촌 등 다양하게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위안과 존경 혹은 가치관이 같거나 의사소통 측면에서 이해와 솔직함 등을 기반으로 한 원활함 등을 꼽았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4〉 가족 구성원 중 의지가 되는 사람과 그 이유

사례 (성/연령)	가족에서 의지가 되는 사람	그 이유
전체	엄마, 아빠, 사촌, 언니 등 다양함	심리적 위안, 정신적 지주, 인생 선배, 지혜가 되며 가치관이 같거나 이해와 믿음이 있어 편하고 솔직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측면이 가족으로서 의지가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은 가족구성원에게서 가장 소원한 사람에 대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방적인 의사소통과 물리적 거리, 가치관의 상이함, 간섭이나 독단적 성격 등을 그 주된 이유로 호소하고 있었다. 반면 긍정적인 애착의 경우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이며 영원히 사랑할 존재로 내면의 안식처가 된다는 내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를 보면 다음 표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가족에게 중요한 것이 이해와 솔직한 의사소통이 관계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본구성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표 5〉 가족 구성원 중 소원한 사람과 그 이유

사례 (성/연령)	가족에서 가장 소원한 사람	그 이유
전체	엄마, 아버지, 누나, 남동생, 사촌 등 다양함	이해보다는 일방적인 의사소통, 자주 만나지 못함, 가치관 등이 다름 등 이를 통하여 정신적인 면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소원함을 구성하도록 의식의 범주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족의 의미

기타 인터뷰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나타난 것은 가족의 경험을 통하여 시간과 경험

을 함께하는 공유의식 및 가족을 통한 공동체의식이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등이 의미있는 가족의 긍정 및 부정적 인식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코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족에 대한 개념', '하위범주', '범주분류'를 하여, 가족에 대한 긍정성과 부정성을 결정짓는 요인에 관해 살펴보았다. 김경신(1993)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의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행위과정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은 '가족에 대한 재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청소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표 6〉 가족의 재정의(의미찾기)에서 나타난 개념, 하위범주, 범주분류(1)

범주	하위범주	개념
가족의 조건	혈연	혈연과 직계가족의 개념은 내외적으로 영속적인 결속을 맺어준다.
	공동생활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냄으로써 동거동락 심리적 결속이 가능하다.
	친구나 이웃	상호 솔직히 마음을 터놓고 의논·의지하는 대상으로서 가능하다.
	애완동물	현대인에게 애완동물은 생활을 함께함으로써 동거가족으로 인식됨
구성원 간 맥락적 관계	의지함	마음의 안식이나 정신적 지주 혹은 솔직한 의논의 대상으로 형성
	친밀함	과거·현재공동경험으로 생성되며 의지의 대상으로 발전 가능하다.
	소원함	물리적 거리감, 책임불이행, 의사소통단절, 가치관 상이 등이 작용
(관계의 질)	좋음	상호간에 이해하고 배려하며 관심을 갖는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무관심	물리적 거리와 가치관의 상이로 가족과 나를 별개의 존재로 인식
	나쁨	가족의 방임이나 이탈로 불신과 적개심을 느끼며 단절감을 경험함
시간적 공유	많음	긍정적 시간공유를 많이 함으로써 관계성과 관계의 질에 영향미침
	적음	부정적 경험의 기억은 현재 관계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됨

〈표 6〉 가족의 재정의(의미찾기)에서 나타난 개념, 하위범주, 범주분류(2)

범주	하위범주	개념
공동체 자각정도	상	책임감이 극도로 지나칠 때는 부담과 소외와 집으로 인식되기도 함
	적절함	유연하고 적절하게 심적 경제적 책임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정도임
	하	방임이나 무책임, 이탈 등으로 나타남으로써 불안과 분노를 야기
가족의 소중함을 절감함 (긍정성)	긍정적 존재	항상 느끼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뿌리임은 인식하고 있음
	소중한 존재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로 인식하며 보답하는 마음
가족에게 분노하고 상처입음 (부정성)	무관심 존재	가족개념은 있으나 개인적 사고로 자신이 다소 별개의 존재로 인식
	부정과 대처	가족을 부정하지만 달리보거나 극복하거나 하는 대처방식을 모색

가족인식의 긍정적 재인식과정	긍정적 인식	가족에게 물리적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인식
	내 삶과 생활	내 삶이나 생활의 일부로써 인식되어 나의 일상이 곧 가족의 일상
	나의존재인식	가족의 의지를 넘어 자신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자함
수동적 피해의식 형성과정	무관심 경향	일부 가족과 상호 능동적인 교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무관심함
	분 노 잠 재	가족에게서 피해의식을 느끼며 내면에서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의 의미부여 의식	가족에게 나	대상과 정도 차이는 있으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고 할수 있다
	나에게 가족	가족은 삶이며 뿌리이다. 혹은 회복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

2. 축코딩

상기와 같은 개념 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축코딩을 구성하였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의 과정에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여 하위범주를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패러다임에 의하여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인과조건, 중심현상, 맥락적인 조건, 작용 및 상호작용의 전략 등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본 인터뷰 조사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가족의 긍정적 재정의 위한 인과적인 조건이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구성원간의 관계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심현상은 '가족에 대한 재정의' 즉 '가족에 대한 의미부여'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심현상의 맥락적인 조건은 가족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 크게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으로 가족구성원의 내면적인 심리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전략/상호작용 전략에 관한 중재적인 조건은 시간의 공유, 관계의 질, 공동체의 자각 등으로 분석되었고, 작용/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전략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거나 과거의 분노나 상처입음에 관해 나름대로 달리 바라보고 해석해보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가족의 의미를 새기고 개인이나 구성원적 차원의 다짐이나 혹은 바람을 갖는 계기가 되거나, 반대의 경우에는 수동적인 피해의식으로 내재하여, 노력과 대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내면에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자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축코딩에 의한 패러다임모형

축코딩(axial coding)은 개방코딩과정에서 분류되면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

하는 과정으로두 범주 즉, 속성(property)과 차원(dimension)을 중심으로 범주 및 하위 범주를 긴밀하고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즉, 속성이란 한 범주에 속하는 특성으로 차원은 연속선상에 놓인 각 속성들이 차지하는 위치라고 볼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0). 그러므로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 현상들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의 인과적인 조건(구성원의 관계성)과 중심현상(의미의 부여), 중심현상의 맥락적조건(시간의 공유, 관계의 질, 배려, 공동체 자각정도),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에 대한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소중함을 절감, 분노와 상처입음)을 인터뷰 과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범주-정의: 가족의 조건

먼저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족의 정의나 조건을 질문한 결과, 응답의 범주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의 범주는 경우에 따라 직계 가족이나 친척 이웃, 오랜 직장동료, 애완동물 등 비교적 폭 넓은 범주가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Irene Levin과 Jan Trost(1992)의 가족개념에 의하여 가족의 범주는 개개인마다 구성원이 다르며 기준도 다양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가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혈연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도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외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얹혀있는가도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족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20대 남).

한 부부애를 가진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가족이란 구성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나 기준은 서로 생각해주며 어려움을 공유하는 기본 바탕위에 생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혈연이라는 어쩔 수 없는 연결로 이어지는 필요 불가항력의 관계라 생각이 들구요(20대 남).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운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20대 남).

(2)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이라 함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일련의 시간이나 혹

은 사건들 이다(Strauss & Corbin, 1998). 즉, 현상을 촉발시키거나 발전시키는 일련의 연속된 사건 혹은 우연하게 발생하게 된 일들이다. 본 연구의 인터뷰를 통한 자료 분석 결과는 구성원의 관계성에 관한 질적인 측면이 인과적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① 구성원의 관계성

구성원의 관계성은 가족이라는 기본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배려와 관심이라든지, 어려운 일의 공유, 가족유대 등을 통해 형성된다. 즉, 인터뷰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관계성은 가족구성원으로 하여금 가족을 인식하고 지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 몰래 귀를 뚫었는데요. 아빠가 그걸 언제 봤는지 귀걸이를 갖다가 저 자는데 놓고 갔어요. 그래서 그 일이 요즘 들어 생각이 나는데 아빠 생각만 나고 그래요 (20대 여).

음 기쁜 일일 때도 뭐...먼저 가족한테 알리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가장 많이 생각 나는 것 같아요. 가령 밖에 나와 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힘들 때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20대 여).

아프고 힘들 때..기쁠 때는 다 나눌 수 있는데 아픈 거는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근데 나눌 수 있는 건 가족이지..(20대 여).

(3)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란 어떤 현상에 속해있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인 전후관계라 볼 수 있으며, 특정한 사건의 전후의 관계로 상황의 맥락 속에서 취해지게 되는 작용 및 상호작용의 전략을 촉진하고 강요하도록 작용하는 것이다(Strauss and Corbin, 1990). 중재적 조건은 맥락적 조건과 비교하면, 더욱 강하고 직접적으로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 회복이라는 중심현상에서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중재하는 조건으로 경험의 공유,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공

동체의식으로 책임감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특성은 가족을 재인식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대한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간의 공유

가족에 대한 기억은 가족구성원으로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그들의 심리와 정서의 한 부분으로 각인될 수 있다. 다음 인터뷰를 통해 그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증재적 조건을 충족해감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것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가족에 대한 긍정성이나 유대감 형성이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장 좋았던 일은 되게 어렸을 때 부모님과 동물원 갔던 거? 지금 딱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4살 때인데. 아빠 쓰러지고 나서 다시 회복하고 나서는 항상 일에 감사하고 좋았던 일인 거 같아요. 그 후에도 나이가 들면서 가족여행도 가고 가족끼리 추억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늘 항상 이렇게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고 좋은 일인 거 같아요(20대 여).

나 대학가기 전에 19살 겨울방학이었는데 그때 엄마가 연탄불에다가 돼지갈비 구워서 다같이, 동생이랑 엄마랑 다 같이 웃으면서 저녁 먹었던거..가 기억에 많이 남아...(20대 여).

저는..말씀드렸다시피 자주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거 같아요. 안 만나니깐... 경험의 공유?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막상 만나도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20대 남).

② 관계의 질

시간의 공유와 함께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다. 만일 많은 시간을 공유했다라도 그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긍정적의미의 지각은 어렵다는 것을 분석결과 알 수 있었다. 다음은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우 내재화된 부정적 경험은 구성원의 심리적 차원과 신체화 증상까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관계의 질에는 의사소통의 질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뭔가 가족한테 이해를 받는 애들이 많은데 저희 가족들은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남동생까지 저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 후로 부터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그냥 닫은 거 같아요 지금까지..(20대 여).

엄마, 아빠한테 있어서..제가. 어떤 존재인지..음....그냥 서로 대화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지..모르겠어요(20대 여).

가장 안 좋은 거는..그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마랑 저의 불화? 엄마, 아빠보다 나랑 엄마가 사이 안 좋아지게 된 계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희 엄마가 나이가 젊으셔서 그랬는지 밖에 자주 나가셨어요. 예전에 하던 치킨 집을 그만 두고 돌이 따로 일을 했는데요. 그 때부터 엄마랑 엄마가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게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저는 싫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싫다가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는 걸 봤나? 그때 심하게 다 두고 그게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어요. 계속..(20대 여).

맨날,, 우리엄마가 술이랑 이런 거 하나도 못하는데, 그때 그런 거, 그때는 그거 아니면 잠을 못자기 때문에 그거 마시고 잠을 자고,, 뭐 그랬지, 그래서 그때, 나는 엄마가 되게 강한지 알았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많이 충격 받았어(20대 여).

③ 배려

가족에게 관심과 배려는 관계의 질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배려에 관한 부분이 부족할 때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상황이 전개되는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못할 것은 이러한 기억이 성인이 되었을 때 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서 20대들이 생각하는 배려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맥락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대화를 통하여 배려의 의미나 그렇지 않을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내면의 상처 등을 인터뷰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음,,서로 한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가슴에 상처주는 말 같은 거 안하고 걱정 안 시키는거..(20대 여)

제가 큰 선택을 하던 작은 선택을 하던..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부모님이

아쉬워하지 않을까, 작은 것을 예로 들면 아이스크림, 빵을 살 때도 가족들의 취향을 고려하게 되고, 제가 또 외동딸이기 때문에 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딱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작고 크고 부분 부분마다 부모님이 의식적으로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20대 여).

장녀라고 늘 잘난 척 하지만 동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갑게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외면하고 제일에 몰두하게 되요(20대 남).

아빠하면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시계 보는 법 배우는 단계였어. 수학시간에, 근데 내가 그때 시계를 볼 줄 몰라서 아빠한테 되게 혼났던거? ..혼내기만 하고 잘 설명을 하지 못했어(20대 여).

솔직히 그때 울 뻔 했어요... 나름 생각해드린답시고 준비했는데 엄청 신경질내고 그러시니까... 뭐... 그렇게 기분 안 좋게 있었는데... 뭐... 알고보니 그날 하필 제가 오기 직전에 형이랑 엄마랑 막 싸웠던 거였어요.. 그때 저희 형이 고3이였거든요. 진학문제로 형이랑 싸웠더라고요. 흠...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감정적으로는 약간의 상처로 남아있어요(20대 남).

나랑 아버지랑 정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그래도 좋았던 게 뭐냐면 과 생활이랑 동아리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시험기간인데 다 와서 다 도와주고. 아버지한테는 미안하지만 근데 오히려 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주변에서 가장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많이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20대 남).

상기 내용을 통하여 배려는 사람간의 관계와 가족에 대한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맥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역동성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에 대한 기억은 마음의 내면에 자리하며 가족을 떠올릴 때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④ 공동체 자각정도(책임감)

그 다음으로 가족 내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된 중재적 요소는 공동체의 자각정도 혹은 책임감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 자각정도와 책임감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생활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나친 염려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새로운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정립(가족)과 의사소통 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그 밖에는 다른 구성원과의 생활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입장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가족에게 바라는 점..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 일찍 주무시는데 제가 안 들어오면 안주무시니까 귀가시간을 당기라고 하시는데 친구들이랑 놀거나 학교에 있다 보면 늦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섭섭해 하시거든요. 제가 안 들어가도 편하게 생각하시고 주무시면 안 될까? 되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가장 또 많이 부모님이랑 부딪히는 부분인거 같아요.(20대 여).

유대감 정도는 같되 그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가족이란 틀에 너무 묶어 버리니까..(20대 여).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엄마, 아빠 각자 행복하면서 그 대신에 저 좀 챙겨가 줬으면? 약간 그런 거? 그냥 서로 행복을 찾으면서도 저를 버리지 않아줬으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엄마, 아빠 각자의 인생을 지금이라도 찾겠다 했으면 뭔가 이렇게 가족이 해체될 거 될 거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냥 저는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한 분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조금 커서 엄마, 아빠가 자기 인생 찾겠다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래도 아직 저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고 일단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바라는 점은 엄마, 아빠 행복하면서 저를 그냥 데리고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예요.(20대 여).

예를 들면 저녁시간 명칭히 있다가도 부모님 생각에 책을 더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걸 내 삶이 내 것만은 아니구나.. 가족과의 공유된 삶이구나 그런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죠.(20대 남).

소위 가족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자녀의 역할, 전체적인 조화가 잘 맞는 가족이 좀 화목하고 이상적인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제가 아직 좀 가부장적인 것이 남아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빠가 끌고 가면 엄마가 옆에서 보조해주고 자녀들은 따라가는? 그러면서도 다 같이 의견

이 존중되는 제가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제가 자녀가 혼자고 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반영해주고 들어주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세요. 약간 평등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족이 무조건 수평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잘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20대여).

(4) 중심현상

중심현상이란 어떠한 사건이나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참여자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반복해서 조절되는 자신의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를 통하여 사건과 이상적 가족과 자신의 가족, 타인의 시선 등의 반추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의미의 부여(지각)로 가족의 의미를 재 정의해보는 것이 중심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① 가족에 대한 의미의 부여(지각)

아빠가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후부터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일이라구요, 없으면 어떡하지? 막막하고, 상상만으로도 힘들더라고요, 저에게 가족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언젠가는 돌아가실거고, 저도 가정을 꾸리면 제 가정에 중요시하게 되고 지금의 가족이 조금 작아지고 소원해 지겠지만 없어진다는 상상은 못하겠고, 항상 함께 하고 싶은 존재인 것 같아요(20대 여).

가족이란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은 웬지 떠올리면 편안한 뭐 이런 느낌. 가족이란 뭐 자식으로도 남은 미래를 함께할 행복한 동반자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원히 사랑해야하고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것이 가족이겠죠? 저도 제 가족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20대 남).

엄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하는... 없으면 정말 안 되지(20대 남).

(5)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이란 특정 현상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 혹은 문제들을만 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구성되며 작용/ 상호작용 전략을 조절 또는 수행하면서 그

과정가운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 취해지게 되는 구체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Strauss & Corvin, 199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맥락적 조건으로 가족경험을 통해 긍정이나 부정적 인식이 도출되었다.

① 경험을 통한 가족 긍정적 인식

가족의 경험은 가족의 인식에 긍정성이나 부정성이라는 흔적을 남기는데 이것은 가족 구성원에게 오랜 기간 동안 기억에 남아 좋은 영향 혹은 트라우마로 작용될 가능성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부부체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20대 자녀의 입장에서 언급한 것으로 부부체계가 솔직하고 공유시간이 많고 친밀할 때 자녀와의 관계도 좋고 이상적일 수 있음이 조사되었다.

그냥 일단 다들 정말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할 만큼 솔직하고.. 이상적인 게 잘 모르겠는 데요. 그 가족에 있어서 부부만 사는 게 아니고 자식들까지도 생각하면 부부 사이가 제일 좋아야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아내, 남편 사이가 진짜 둘이 사랑해야 같이 낳은 자식들도 행복한 거 같고 ..근데 진짜 제 주변에는 많아요. 뭐 각자 다들 스트레스 받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 두 분이서 나이 있으셔도 같이 하는 거 많고 부부동반 이런 모임도 자주 가고, 같이 여행도 잘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딸하고 아들하고도 사이가 좋은 거 같고 우리 집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 아빠 사이가 좋은 그런 가족이 행복한 거 같아요. 그게 이상적인거 같아요(20대 여).

② 경험을 통한 가족 부정적 인식

다음은 타인이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는 입장에 대하여 20대 자녀로서 언급은 가족의 거리감이 남들에게도 좋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느끼는 부정적 인식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후자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 체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가족인식에 관하여 훗날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봐도 우리 집 상황은 가족끼리 전혀 친밀하지가 않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러니까.. 제가 막 애교있는 딸은 아니고 어디 가서 남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어제는 어쨌고 저쨌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 본적이 없으니까 또 대학교 가서는 계속 떨어져 살아서 더 이제 거의 좀 진짜 밖에서 봐도 딸인지 알아

볼까 모를까 그렇게 우스게 소리로 그런 소리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좀 거리가 먼 저희 가족 상황을 봐서.. 안타깝게 보는 것 같아요(20대 여).

아직은 저도 아예 독립적으로 자리 잡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심한데, 뭔가 보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왜냐면 정말 스트레스는 누구나 가족한테 받는데 그거를 가족한테서 풀어야 하는데, 저는 스트레스는 있는 대로 받기는 받고 그걸 또 푸는거는 가족한테서 풀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그런 교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는 계속 받다 보니까 짐으로만 생각하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존재예요(20대 여).

(6)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이란 특정하게 인지된 상황들 아래서 중심현상이 전반적인 맥락적 조건 속에 존재하거나 혹은 특정한 조건 내에서 존재하는 것과 같이, 현상을 다루거나 조절, 수행, 반응하는 것에 쓰이는 것이다. 즉, 현상에 대하여 스스로 대처하거나 이를 다루기 위해서 취해지는 의도적이며 고의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긍정적인 경험은 가족의 소중함을 절감하여 가족에게 대한 각인을 새기고 다짐하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반면 부정적 경우에는 가족에 대해 상처를 입고 반감을 가지면서 의도적으로는 다른 가능성을 배재하거나 혹은 부정적 상황을 마음에서 배재하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각도로 초점을 옮기는 이중부정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이 가족에 관한 인터뷰에서 조사되어 이에 대한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① 가족의 소중함을 절감

아빠 쓰러지셨던 일이죠. 정식 명칭은 뇌출혈이었어요. 그 전에 약간 일도 많으셨고 제가 고3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 같아요. 쓰러지시기 전에 살도 10키로 정도 빠지고 근무 중에 쓰러지셨거든요 제가 고3때라서 많이 찾아뵙지는 못했어요. 병원에 자주가지는 못했고 수술 끝나고 아빠를 뵈러 간적이 있는데 되게 헬썹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모습이 되게 생생해요. 그때는 진짜 안 좋았었고, 제가 가족과 같이 살면서 가장 힘들고 안 좋았던 순간이었던 거 같아요(20대 여).

아직까지는 마음속 영웅은 나의 아버지이세요. 하지만 늙어 가시는 모습에 이젠

내가 아버지가 의지할 수 있는 1인으로 남고 싶어요...지금은 이제 누군가를 의지하기 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지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맘이에요(20대 남).

② 가족에게 상처입음

제가 만약 다른 부모를 만났어도 똑같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뭔가 친구들한테 되게 의지하게 만들고 가족보다 가족을 떠나 다른 사람들을 더 믿고 도움이 필요할 때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더 먼저 생각이 나고 가족보다는 친구들이 더 도움을 준 적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가족이 미친 영향이 부정적인거 같아요. 남들에 비해서 못 가졌다고 자책할 때가 많았는데 그제 다 가족들 하고의 별로 좋지 않을 관계가 만든거 같아요(20대 여).

기타로는 가족에게 상처를 입었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통한 연구 결과로는 구성원 모두 평범하지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자각과 함께 스스로 가족에 대한 재인식을 내면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 결과

결과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어떤 현상에 대처하려고 취해진 행동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은 결국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으로 긍정적으로 재인식하게 되거나, 내면적으로 자신의 환경에 대한 수동적으로 피해의식을 갖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때 개인주의나 회피 혹은 달리 마음을 먹고자 하는 작용/상호작용전략이 있을 수 있으나, 내면적으로 자리한 환경에 대한 피해의식이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① 가족에 대한 긍정적 재인식

가족이란 뭐 자식으로도 남은 미래를 함께할 행복한 동반자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원히 사랑해야하고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것이 가족이겠죠? 저도 제 가족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20대 남).

사랑이죠. 사랑과 관심이고,,, 정다운 말 한마디고 그런 거죠. 모든 걸 주신 분들(20대 남).

한 마디로 가족은..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죠 가족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자나요
(20대 남).

② 가족환경의 수동적 피해의식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저에게 뭐랄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부분이고,,, (20대 남).

친척들한테 서운하고... 그냥 좀 웬지 모르게 남남인 것 같은 느낌. 친한 친구보다 못한 느낌이 많이 들어.(20대 남).

다음 <표 7>은 상기내용에 따라 주요현상의 속성과 차원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7> 주요현상의 속성과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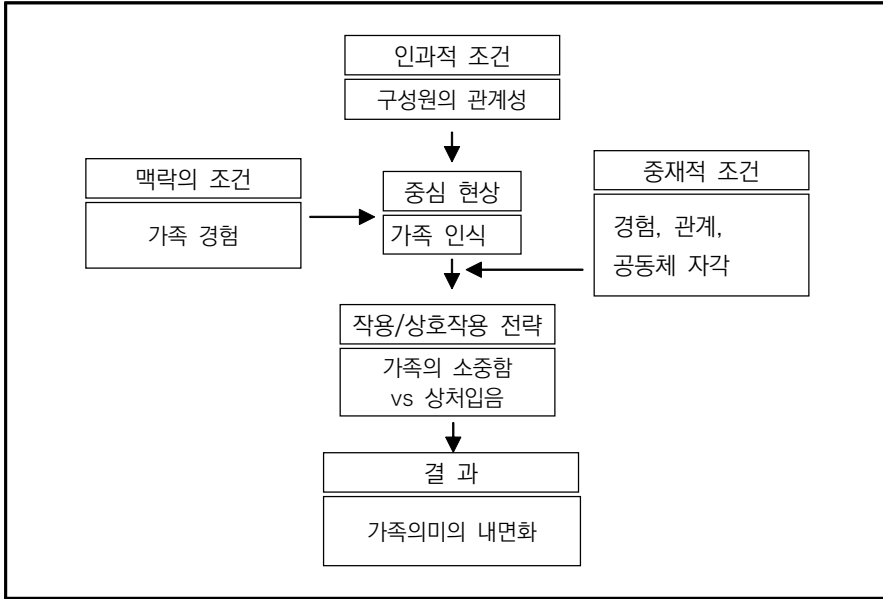
	범주	속성	차원
주요 현상	가족-마음속의 인식	인식의 정도	중함-미약함
		(가치관에 영향을 줌)	(깊음)-(얕음)
인과 조건	구성원간의 관계성	친밀의 정도	강함-약함
맥락 조건	경험을 통한 가족 긍정성 형성	정서적인 영향	큼-작음
		(정도)	강함-약함
	경험을 통한 가족 부정성 형성	정서적 영향	큼-작음
		(정도)	강함-약함
중재 조건	경험을 통한 시간 공유	정도(질)	깊음(좋은)-얕음 (나쁨)
	관계의 질-배려의 정도	정도(질)	깊음(좋은)-얕음 (나쁨)
	공동체 자각 및 의무감	정도(질)	깊음(좋은)-얕음 (나쁨)
작용 및 상호작용 전략	가족의 소중함을 절감	정도(이에 대한 다짐)	큼-작음
	가족에게 분노나 상처입음	정도(이에 대한 의식적 회피나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함)	큼-작음
결과 (가족의미 내면화)	가족 인식의 긍정적 재정의	정도	큼-작음
	수동적 피해의식	정도	큼-작음

3. 패러다임 모형

다음은 상기의 근거이론으로 분석한 가족의 고찰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이다. 패러다임 모형은 범주들이 어떻게 교차되고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게 된다(Strauss & Corbin,

1998). 이를 통한 각 범주간의 관련성을 정리하여 다음의 <그림 1>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 패러다임 모형



다음은 이를 근거로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제시하여 이를 통하여 몇 가지 가족 유형의 분석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8>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구분	범주	속성	차원
핵심범주	의미찾기	가족과 상호관계의 질	긍정적-부정적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가족의 몇 가지의 유형분석이 도출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각각 케이스에 대한 가설적 질문으로 시간의 공유경험이 많고 관계(배려)의 질이 높으며 또한 가족 공동체의 자각이 큰 경우가 가장 긍정적인 의식을 형성하여 구성원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자신도 그 모델에 따라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갖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재정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반면 시간공유의 경험 많더라도 반면에 관계 즉, 상호

배려의 질이 낮다면 가족의 소중함을 절감하고도 긍정적으로 가족을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의식 가령 책임감이나 의무감 등이 낮은 경우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갖을 가능성도 나타났다. 한편 시간의 공유경험과 관계로 즉, 배려의 질이 모두 낮으며 반면 공동체 자각으로 책임이나 의무감만이 높은 경우라면, 가족이라는 존재는 스트레스와 부담 즉, 짐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공유의 경험과 관계(배려)의 질이 낮으며 공동체 자각(책임감이나 의무감)마저 없다면 구성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체계적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여타 가족들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를 고려하는 가족복지학적인 차원의 개입도 고려해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를 토대로 가족이라는 기본조직 중에서도 각 유형의 분류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9〉 가족의 지각에 대한 유형의 분류

패러다임 \ 유형	가족 긍정성향 형성	가족 부정성향 형성	조직보다 개인형
현상	가족의 소중함 인식	가족존재의 부정	개인주의 의식
인과조건	구성원간의 관계-친밀도 높음	구성원간의 관계-친밀성 낮음(구성원 각각에 대해 상이함)	구성원간의 관계- 별개적인 삶의 의식형성
맥락조건	가족을 통한 긍정적 경험	가족을 통한 부정적 경험	가족의 불인정, 개인주의
중제조건	시간의 공유 (많거나 적음) 관계의 질(좋은) 공동체 자각(높음)	시간의 공유 (많거나 적음) 관계의 질(나쁨) 공동체 자각 (비교적 낮음)	시간의 공유(주로 적음) 관계의 질(좋은 나쁨) 공동체 자각 (비교적 낮은)
전략	가족의 소중함을 절감함	가족에 대한 상처와 분노	마이웨이 개척형
결과	긍정적인 가족의 인식	부정적인 가족의 인식	개인주의
핵심범주	가족의미찾기 (긍정성)	가족의미찾기 (부정성)	가족보다는 스스로의 삶에서 의미를 찾음

이와 같이 가족이란 각각의 구성원에게 갖는 의미 그리고 심리적 영향과 관계적 영향 및 경제적 영향들이 총체적으로 개인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은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가족을 재정의하는데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맺는말

본 연구에서는 20대 성인들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가족이 지니는 의미에 관하여 근거이론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가족이라는 기본조직은 그 특성상 구성원 간 상호 미치는 영향이 깊은 만큼, 가족의 역동성을 체계이론을 기본으로 어떠한 속성들이 가족역동성을 형성하는 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내에서의 구성원 간의 시간공유와 관계의 질, 그리고 적절한 공동체 의식은 가족구성원의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여타의 둘째, 가족 구성원간의 불화와 의사소통의 장애 및 단절은 가족 구성원에게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셋째,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성년의 청소년이 갖는 가치관이나 기본 생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족의 기본 경험들은 개인내면의 정서형성에 내재하여 성장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가정에서 구성원간의 긍정적인 유대감과 의사소통은 성인에게 가족의 깊은 의미를 형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이상적인 가족 이미지를 형성하며 긍정적인 가족인식의 근간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의 환경적 요인 즉, 가정의 요인들이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허승연, 2009)와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사이의 의사소통, 가정분위기, 양육방식등의 형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 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은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최성학, 2012).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가족복지학이나 가족상담 차원에서 성인이나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개입의 부정적인 요인들을 개선하고 긍정요인을 훈련할 수 있도록 고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 표본추출에 있어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즉, 본 연구가 유의표집 방법으로 소규모의 인원만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은 연구의 제한점을 갖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다양한 가족의 양상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분석 대상이 세대를 대변하기에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변수를 보다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세대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복지학 차원에서 본 연구는 체계이론의 모호성이 가지는 불명확한 요소에 관하여, 이를 논리성을 보완한 근거

이론을 통해 접근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족이라는 기본조직의 의미를 조명하여 살펴보았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가족복지의 실천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개입과 지원은 물론, 이들을 둘러싼 체제인 환경이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경험적인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홍봉선, 남미애, 2010).

본 연구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즉, 20대의 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가족이 경험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의 내면에서 가족에 대한 이미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릴 때의 부모의 불화나 가족구성원의 부정적 변화(죽음이나 병고, 이탈 등)는 개인의 일생에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과의 소원함은 시간공유 차원에서 잘 놀아주지 않거나 의사소통의 부재와 물리적인 거리 등도 가족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족복지학적 측면에서 볼 때 탄력성(레질리언스)이나 회복에 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개념은 생활을 통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가족차원에서 가족복지나 심리적 차원에서 볼 때 가치관의 정립이나 일상생활패턴의 변화를 통한 개입에 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연구의 함의가 있다. 가족의 경험은 개인에게 가정에 대한 깊은 이미지를 개인의 심상에 깊이 남긴다. 또한 가족과의 생활적 경험이 가족의 긍정이나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내재되어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가족 간의 시간공유 경험은 관계의 질을 형성할 수 있고, 공동체의 자각정도 역시 의미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심리 및 정서적 영역에서 개인에게 무형의 힘으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경우 개인의 의식 속에서 트라우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훗날 지속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점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의 의미에 관하여 일부 연구 참여자는 가족을 '가족이 삶의 전부이다, 가족이 있어 고맙다, 생명과 같은 존재이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개인에게 있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처럼 가족은 서로의 상호 관계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며 동시에 가족의 체계와 나아가 사회의 체계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다 건강한 체계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족 구성원 간의 건강한 관계형성을 위한 가족의식의 형성과 이를 위한 관심의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사회의 기본구성요소가 가정이라는 조직이니만큼 개인이 속한 가족의 건강은 결국 사회의 가치관과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귀중한 기본단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가족복지학을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미시적 구성단위의 체계로 바라보고 이를 보다 사회의 조직학적 시각에서도 바라보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이 건강한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 타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가족 구조 전체 및 사회의 기본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가족의 해체나 역할 상실은 사회적 문제로도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는, 사회의 기본 구성요인인 가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통한 가족단위의 정책 프로그램이나 해체의 위험에 직면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차원의 상담 혹은 예방 프로그램과 가족결속을 도모하는 활동에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교육적 과정을 통해 가족이라는 기본조직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새로이 정립하고 가족문제가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로 인식되어 근본적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내재되게 되었는가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 되돌아보아 사회적으로 다양한 지지체계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논문이 미래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20대 청년들을 통하여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청소년들이 가족이라는 체계론적 환경을 통해서 보다 건강하게 생활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에 본 논문의 맥락적 과정의 연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경신(1993). “가족학의 이론적 관점과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1(1), 137-151.
- 김경아(2002). “청소년의 예절수행 세대전이 및 가정생활 건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길자(2007). “청소년들의 가족개념에 대한 질적 연구-중학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학(201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의사소통비교연구”,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실(2003). 『가족학이론: 관점과 쟁점』, 하우 출판사
- 허승연(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홍봉선, 남미애(2010).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19-42.

Adelmann, P. K. (1994). Multiple Ro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National Sample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9(6), 227-285.

Butcher, D. A. (2000). *The relationship among engagement in youth development program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problem behaviors*: An exploratory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tah university.

Irene Levin & Jan Trost(1992).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Family, *Family Relation*, vol. 41(3), 348-351.

Kazdin, A. E.(1987). Parent management training evidence, outcomes and issue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1349-1356.

Klein, K., Forehand, R., Armastead, L., & Long, P.(1997). Delinquency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ulthood: Family and parenting predictors from early adolescence. *Adolescence*, 32(125), 61-80.

Sokol-Katz, J., Dunham, R., & Zimmerman, R.(1997). Family structure versus parental attachment in controlling adolescent deviant behavior: A social control model. *Adolescence*, 32(125), 199-215.

Sprinthall, N. A., & Collins, W.A.(1995). *Adolescent Psychology: A developmental view(third ed.)*. New York: McGraw-Hill, Inc.

Smith(2009). *Exploring family theory*, Oxford.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 York: SAGE Publications, Inc.